

보도 일시	2023. 1. 11.(수) 09:00	배포 일시	2023. 1. 11.(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담당자	청년보좌역 최수지 (044-203-2015)

문체부의 ‘드림머스’, 2030 자문단 활동 본격 시작

- 1. 11. 첫 정기회의 개최, ‘청년 10대 과제’ 선정 등 연간 활동 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드림머스(dreamers)’, 문체부 2030 자문단이 1월 11일(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5일(월)에 출범한 2030 자문단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정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21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박보균 장관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여러분은 문체부의 ‘드림머스’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정책의 성취를 이루고,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주입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여러분이 우리 부에서 도전과 성취를 멋지게 이루길 기대하고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도 “청년은 K(케이)-컬처의 미래다. 문체부의 2030 자문단을 통해, 청년의 열정과 도전, 의지, 아이디어를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자문단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 자문단은 연간 활동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청년 정책을 포함,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시각과 요구를 전달해 정책의 청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인재 양성, 창·제작 지원, 문화 누림 등을 중심으로 문체부 정책 중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고, 청년의 정책 효능감이 높은 과제를 ‘청년 10대 과제’로 직접 선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청년 10대 과제’는 2월 중에 선정을 완료하고, 자문단 활동으로 실제 정책을 개선한 성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단은 전문가 자문,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정책 현장 방문, 청년문화토론회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년이 행복한,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임다연 자문단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 10대 과제’를 통해 청년이 행복한 문화매력국가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의지를 내비쳤고,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 대표인 최조은 자문단원은 “청년세대를 위한 비전과 희망이 필요한데, 그들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은 “문체부의 정책은 재미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바다이며,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보면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무궁무진하다.”라며, “자문단 활동이 청년세대의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부내 신년 인사회와 신년 음악회,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등 주요 행사에 자문단원을 초대해 정책 담당자와 자문단 간의 소통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왔다. 앞으로도 자문단원이 다양한 문화정책 현장에 참여해 청년의 열정과 도전 의지를 살린 참신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